

대담 對談

평창 올림픽 자원 봉사자 신용계 (68) 동문과 함께

일시: 2018 년 3 월 27 일

장소: Chantilly, Virginia

참석자: 68 졸업 김영덕, 김주평, 김철, 김진홍, 김희주, 정재성, 주광국, 서윤석
69 졸업 김병오(Virginia)

사회: 신용계 동문은 1988 년 서울 올림픽 경기의 성화주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자원 봉사자로서 보람된 일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1 월 말에 서울에 도착하여 3 월 20 일까지 약 7 주간 Paralympic Game(장애인 게임)까지 봉사했습니다.



이제 신 동문의 이야기들 들어봅시다.

질문: 자원 봉사를 언제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자원 봉사자는 몇 사람이나 됐는지요?

2016년 9월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12월 경에 서류 심사에 통과하여 2017년 2월 영상 인터뷰를 하고 5월에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7만명 이상의 지원자 중에 2만명의 봉사자가 선발되었고 그중 약 1200명이 외국 봉사자로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등 전 세계에서 참여했습니다.



질문: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경비는?

경비는 자비로 왕복 비행기표, 그의 용돈이 자비였고 숙소와 식사, 출퇴근 셔틀, 유니폼은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2월 3일부터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분교 학생 기숙사에 머물며 비좁은 공간에서 2층 침대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하루 세끼가 모두 한식이니 외국 봉사자에게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연히도, 이곳에서 자원 봉사자로 오신 서울 의대 65년도에 졸업하신 Uta 주의 백혜태 (Hugh Paik) 동문을 만나서 몇 일을 한 방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숙소를 속초 북쪽에 있는 고성으로 옮겨 강릉의 올림픽 파크에 있는 **Speed Skating Venue** 내의 의무실에서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경기장에 두 개의 의무실 (선수 의무실, 관중 의무실)을 오가며 여러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처음 몇 일은 날씨도 추웠고 피곤했는데 차차 적응하여 경기도 관람하고 의무실내의 젊은 동료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올림픽 후 2월 26일에 **Paralympic Games** 을 위해 고성에서 횡성으로 숙소가 변경되었고, 이 곳에서 평창 소재 이종 경기장 (**Biathlon Center for country skiing**)으로 출 퇴근 (1 시간)하게 되었습니다. 날씨 온도가 상승하여 횡성에는 눈이 없으나 평창/대관령은 그래도 눈이 있어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평창 이종 경기장에서는 **Doping Control Chaperone** 으로 올림픽 위원회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에서 지정한 선수를 경기가 끝난후 **Doping Control** 에 선택되었음을 알리고 **Blood or Urine Sample** 채취를 위해 **Doping Control Station** 까지 안내하는 일입니다.

질문: 그러면 소변, 피검사는 바로 나오는 가요?

평창 올림픽에서의 소변과 혈액 샘플은 분석을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원 (KIST) 도핑컨트롤센터로 보냅니다.



질문: 진료실에서는 어떤 환자들을 만났습니까?

추운 날씨 관계로 상기도호흡기질환(Upper Respiratory Infection) 환자가 많았고, 그 다음이 노로바이러스(Norovirus)로 의심되는 위장 질환 병세였습니다. 강릉에 바람이 많이 분 날에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고생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질문: 혹시 북한 선수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까?

Olympics(올림픽) 기간에는 Speed Skating 북한 선수는 접촉이 어렵고, 여자 Hockey Team 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Paralympics 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의 장비와 탈의실이 Doping Control Station(약물검사소) 앞에 있어서 자주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들을 격려하러 온 날,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사진 촬영에 반갑게 응했습니다.



질문: 가장 기뻐던 기억은?

강릉 **Speed Skating** 마지막 경기인 **Mass Start** 에서 한국 선수의 금 메달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경기장에 퍼지면서 손을 가슴에 얹고 오랜만에 불러본 애국가. 여자 빙상 **500** 미터 경기에서 체구가 유럽 선수보다 월등히 적은 일본과 한국 선수가 금, 은 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이 기쁘고 놀라웠습니다.



질문: 가장 감동적인 기억은?

Paralympic Cross Country Skiing 과 **Biathlon** 경기에서 여러 장애인 (**Upper limbs, Lower limbs, Visually impaired**) 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은 아름답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사격경기에 임하고, 팔 혹은 다리 하나, 양쪽이 없는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정신력과 투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Paralympics 중에 아쉬웠던 점은 한국 미디어 (방송사) 관심이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아주 미약했습니다. **Doping Control Chaperone** 으로 미디어 지역을 자주 드나 들며 느낀점입니다.

질문: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숙소와 근무지 강릉이 너무 멀고 (버스로 1 시간 10 분), 경기가 오후에 있어 밤 열시 이후에 숙소로 오는 날도 종종 있었고, 한 숙소에 방이 두개이나 4 명 혹은 그 이상의 봉사자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장소가 불편했습니다,

질문: 다음에도 또 올림픽 자원봉사를 하시겠습니까?

2 년 후에 동경하계올림픽과 4 년후에는 북경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만 젊은 봉사자에게 양보해야지요.



사회:

우리 닥터 신이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감기 몸살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걱정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와 줘서 기쁩니다. 그 때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걱정이 되어 힘이 너무 들면無理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권하였기도 했지요. 이것으로 대답을 마칩니다. 오늘 이자리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기록; 편집인